

# “故 김성재 편 방영 금지 깊은 유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 취재 과정·방송 되지 못한 이유 설명

“지난 가처분 신청 이후 새로운 제보 이어져…과학적 재해석 준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21일 방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그룹 드스 멤버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 방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

이 알고 싶다’에서 김상중은 “오늘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로 예정됐던 방송은 ‘고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였다.

어제 오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방송이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올해 초 취재를 시작했던 김성재 사망 사건은 지난 8월 3일에도 한 차례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였던 A씨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방영되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방송을 다시 준비했던 이유는 지난 방송 금지 가처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의 제보들이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는 어찌면 김성재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동시에 제작진은 지난 8월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의 진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방송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받게 됐다”고 취재 과정과 방송이 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상중은 “오른쪽에 28개의 주사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고 김성

재 사망 사건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다. 여전히 그의 몸에서 왜 동물 마취제인 콜레틸이 발견된 건지, 콜레틸로 인한 사망이라면 투약된 양은 얼마인 건지, 무엇 하나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로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여전히 스플릿 속에 있는 유족들과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 오랜 의혹을 우리는 지금의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총 53명의 전문가와 접촉했고, 23편의 논문을 공부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취재도 진행하며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편집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방송을 앞두고 작성 중이던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기대한 결과는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법원이 우리의 방송을 A씨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해소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1972년생인 김성재는 1993년 드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솔로 앨범 커번 하루만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치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안착 ‘1박2일’ · ‘미우새’ 위협하는 ‘슈돌’

## KBS의 ‘신의 한 수’

‘1박2일’의 부활과 맞물린 KBS 예능의 연세적 편성 이동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박2일’ 새 시즌을 방송 초반 안착하게 한 것은 물론, 다른 예능들 역시 편성 시간을 바꾼 뒤에도 비교적 선방하면서 안정적인 라인을 구축했다는 평이다.

지난 8일 론칭한 KBS 2TV ‘1박2일 시즌4’(이하 ‘1박2일 4’)는 기존 ‘1박2일’ 시리즈가 방송되던 일요일 오후 6시30분에 편성됐다. 2007년부터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온 브랜드 예능이기에 상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박2일 4’가 일요일 오후로 편성이 결정되며, 몇몇 예능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였다. 론칭 이후 일요일 오후 5시 대를 든든히 지켜온 ‘슈돌’은 ‘1박2일 3’ 방송이 중단된 뒤 해당 시간 대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1박2일’ 새 시즌이 돌아오며 다시 한번 방송 시간을 옮겨야 했다.

KBS 예능국은 고심 끝에 ‘슈돌’을 일요일 오후 9시15분으로 파격 편성했다. 해당 시간대는 일요 예능 강자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와 경쟁 대결을 하는 자리이기에 여유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대. 하지만 KBS는 마니아 시청자가 탄탄한 ‘슈돌’의 콘텐츠를 믿고 편성 이동을 감행했다.

결과는 일단 성공적이다. 시간 대를 옮긴 뒤 방송된 ‘슈돌’ 307회는 1부 11.7% 2부 10.9%(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 방송에 비해 3~4% 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해당 시간대에 방송되던 ‘개그콘서트’보다는 두 배 이상 높은 시청률이다. ‘슈돌’의 성적이 둔보이는 이유는 더 있다. ‘미우새’의 시청자를 일부 끌어들인 것. 실제로 ‘미우새’의 8일 시청률은 1부 13.8%, 2부

15.1%, 3부 14.8%로 직전 주에 비해 2~4% 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15일에도 ‘슈돌’의 시청률이 소폭 상승하고, ‘미우새’는 하락하며 일요 예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1박2일 4’ 역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8일 방송된 1회는 1부 12.5%, 2부 15.7%를 기록하며 일요 예능 시청률 1위에 등극했다. 15일 방송된 2회 역시 1부 11.6%, 2부 15.1%의 시청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갔다. 이는 ‘1박2일 4’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멤버들의 활약에 브랜드 예능에 대한 인지도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일요 예능 1위의 기록은 ‘슈돌’의 편성 이동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 KBS 예능국 관계자는 뉴스1에 “‘1박2일’은 시청자들이 오랫동안 시청하던 시간이 일요일 오후 6시30분인 점을 감안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시간대에 편성하게 됐다”며 “‘슈돌’은 전쟁터 같은 시간대에서 잘 버텨줘 고맙다. 방송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송구스러웠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따라와 주시더라. 우리도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가 따르는 결정이었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안착하는 분위기에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방송일을 변경한 ‘개그콘서트’는 시청률 변화가 거의 없다. 지난 1일 방송이 4.9% 시청률을 옮긴 후인 7일 방송이 4.9%로 동률을 기록하며 시간대 변경으로 인한 타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방송은 5.4%로 오히려 시청률을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이동한 ‘베틀트립’ 역시 시청률에 큰 변화 없이 마니아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다.

‘1박2일’의 부활로 인한 KBS의 연세 편성 이동은, 결과적으로 예능 판도를 KBS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 “송혜교 결혼반지 다시 꺼졌다”…송중기와 재결합설 ‘떠들썩’

네티즌들 사이에서 소문, 중화권 매체들 관련 내용 보도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의 재결합설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커지면서 중화권 매체들도 보도에 나섰다. 송혜교가 최근 결혼 반지를 다시 낀 것으로 보인다는 화보 사진이 돌면서부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대만 중국 시보는 ‘송송 커플 재결합으로 전환? 송혜교 결혼반지 다시 꺼’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재결합설을 보도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확산되고 있는 문제의 사진은 최근 한 접지

사가 공개한 화보 사진이다. 중국 시보는 “두 사람의 재결합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재결합설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두에서도 연일 송혜교 재결합설에 대해 확실하지 않고 두 사람이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 제로(0)라고 보도하면서도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온 장면은 아이들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 뇌리 속에 살아 있다”며 이쁜 소식을 안 터키워하는 팬들 심정을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7월 22일 이혼조정 끝에 서로 위치로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 MEGABOX 광주점

1관 백두산, 감쪽같은 그녀

2관 백두산

3관 시동

4관 백두산

5관 포드 V 페라리, 쥬만지: 넥스트 레벨

6관 겨울왕국

7관 시동, 감쪽같은 그녀

8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포드 V 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미안해요 리키

9관 백두산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1관 겨울왕국2,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아스테릭스

2관 겨울왕국2,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쥬만지

3관 시동

4관 백두산

5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포드 V 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6관 백두산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